

푸른숲선도원, 산불예방에 앞장섭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한 나무들이 우리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단 몇분만에 검은 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산림청에서는 건조한 봄철 날씨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2006.2.1 ~ 2006.5.15까지 산불예방시기로 정해놓고 대대적으로 산불방지에 들어갔습니다.

푸른숲선도원 여러분,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부모님께도 알려드립니다.

-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입산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합니다.
- ◆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불을 피워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합니다.
- ◆ 산불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합니다.



* 작년 4월 5일 강원도 양양 낙산주변에 산불이 발생해 커다란 피해를 입은 사건을 모두 기억하시죠? 등산객이 버린 담배꽂초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 250ha, 건물 246개 등이 소실됐고, 우리의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전소되어 모든 이가 안타까워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은 이처럼 아찔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산불이 나면 우리의 나무와 숲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동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자연자원을 훼손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지요? 우리나라 숲 지키미, 푸른숲선도원 여러분! 산불예방에 앞장서 나가면서, 우리나라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푸른산, 푸른마음 나무를 심어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불재해, 병충해로 인한 피해등으로 불량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림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푸른숲선도원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올바른 나무심기와 나무가꾸는 방법을 통하여 숲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올바른 나무심기 방법

- 1 나무를 심을 곳에 잡초와 관목이 무성해 있으면 베어 없애고 나무심기에 편리하도록 정리작업을 합니다. (작업시기는 나무심기 한해전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늦어도 그해 2월말까지는 끝내야 나무심기에 편리합니다.)
- 2 심을 나무의 크기에 따라 구덩이를 충분히 판 후,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놓고 돌, 낙엽 등을 가려냅니다.
- 3 부드러운 겉흙을 먼저 넣은 다음 묘목의 뿌리를 잘 펴서 곧게 세우고 겉흙부터 구덩이의 2/3이 되게 채웁니다.
- 4 묘목을 살며시 위로 잡아당기면서 밟아줍니다.
- 5 나머지 흙을 모아 주위 지면보다 약간 높게 정리한 후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낙엽이나 풀 등으로 덮어줍니다.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심은 나무를 가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나무가꾸기에는 거름주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솜아베기 등이 있으며, 이들 작업을 제때에 해주어야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무를 심고 난 후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나무를 가꾸어 가치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도록 도우미가 되어보세요. 푸른숲선도원의 따뜻한 정성이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 나무와 숲은 한뼘 한뼘 자랄 것입니다.



식목일은 나무심는 날?

혹시 식목일은 그저 봄에 나무심는 날로 알고 무의미하게 넘기곤 하지 않으셨나요? 식목일은 단순히 나무심는 날은 아닙니다. 4월 5일은 신라가 당나라를 몰리치고 삼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한 날(문무왕 17년 2월 25일)이며, 조선 성종대왕이 세자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동대문 밖 선농단에 나와 친히 밭을 간 날입니다. 청명과 한식날이 4월 5일과 겹치거나 전후하여 있어 조상에게 성묘하고, 주변의 산이나 들에 나무를 심었던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식목일은 민족사적으로는 통일 성업을 완수하고 임금이 몸소 밭을 간 날로서 농림사적으로도 매우 뜻있는 날일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나무심기에 좋은 계절이기에 식목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 속에 나무를 심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속에도 공원이나 숲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흔히 도심속의 공원이나 숲을 도시의 허파라고도 합니다. 50년생 활엽수 한 그루는 12명의 사람이 숨쉬는데 필요한 양의 산소를 방출하고, 에어컨 12대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식목일을 맞이하여 산과 들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도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가꾸는 푸른숲선도원이 되어봅시다.